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문화탐방위원회 출범

장성호 수변 일원서 50여명 참석...운동회 등 프로그램 다채
박아라미 위원장 “체계적 준비·실행...원우 구심 역할 할 것”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원우회장 허승업) 문화탐방 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6일 장성호 수변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허승업 원우회장,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 박아라미 문화탐방 위원장을 비롯한 원우 등 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문화와 자연을 담은 탐방’을 슬로건으로 걷기와 친선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원우들은 삼삼오오 아름다운 수변길을 걸으면서 힐링과 조별 콘테스트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제기차기와 OX퀴즈, 신발던지기, 줄다리기 등 미니운동회와 경

품 추첨 등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아라미 문화탐방 위원장은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을 벗 삼아 원우들과 함께 걷고 담소를 나누면서 힐링은 물론 더욱더 친밀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원우들의 구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허승업 원우 회장은 “문화탐방과 트레킹은 심신의 회복은 물론 원우회의 우정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활발하고 다양한 문화탐방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문화탐방 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6일 장성호 수변 일원에서 열렸다.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은 “문화탐방은 광남일보 아카데미의 대표적인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참여와 기대가

매우 큰 만큼 14기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는 광주·전남지역 각 분야의 CEO 및 주요 리더들이 대거 참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

하고 새로운 지식을 향유하는 품격있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v0918@gwangnam.co.kr

조선이공대, 광주시 인재양성체계 사업 ‘최고등급’

지역 맞춤형 실무형 인재양성·산학협력 성과 인정
지속가능 성장 모델 체계 고도화로 ‘S등급’ 획득

조선이공대학교가 광주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원격) 사업 1차년도 자체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사회 연계 성과를 인정받았다. 7일 조선이공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사업 추진체계와 성과관리, 지역사회 협력도, 예산 집행, 성과 확산 및 환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다. 조선이공대는 전체 11개 단위과제 중 5개 단독과제를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이공대는 ‘지역이 요구하고 광주가 부르는 광주로-콜(Gwangju LO-CALL) 실무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지역 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창업·취업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리빙랩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평가 결과에서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사업 비전 및 전략 간 연계성이 우수하고, 총괄관리위원회와 성과관리위



원회 등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대부분의 성과지표를 목표 이상 달성하고 성과관리 시스템과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 역량도 인정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기관 연계형 주문식 특화교육 및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고교 연계형 예비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 △창업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R&D 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구축 △광주 일자리-취업-기업 ON 얼라이언스 운영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광주 문화예술·관광도시 활성화 △블룸 싱크 탱크 대학 운영 △대학·지역사회 자원 공유 커뮤니티 아카데미 운영 △글로벌 오픈캠퍼스 조성 등이 꼽혔다. 이응재 총장(사진)은 “이번 S등급 획득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산업체,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지역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고서관영씨 유족, 조선대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고인의 교육사랑·나눔 뜻 기려...‘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선대학교는 최근 본관 총장실에서 ‘고서관영씨 유가족 기부식’을 열고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고서관영씨는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조선대학교와 인연을 맺었다. 평소 교육의 중요성과 인재 양성의 가치를 강조해 왔으며, 학교 설립에 대한 뜻을 가족들에게 자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김준성 총장과 서관영씨 아들 서병찬씨(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조선대학교

고인의 아들 서병찬씨는 “아버지께서는 생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조선대 학생들에게 전해져 희망과 사랑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성 총장은 “교육을 향한 고인의 뜻을 학교에 전해주시는 유가족께 감사드립니다”며 “고인의 나눔 정신이 학생들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의 의미를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력거래소, 노사합동 신입직원 ‘청렴문화 현장교육’

나주 월정서원에서 청렴 가치·책임 내재화 등 의지 다져

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남 나주시 소재 월정서원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KPX 신입직원 청렴문화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력거래소의 미래를 이끌 어갈 신입직원들이 공공기관 입직원으로 갖춰야 할 청렴 가치와 책임을 내재화하고,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올해 입사한 신입직원 38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가 진행된 월정서원은 조선 중기 청백리의 귀감으로 존경받았던 사암 박순선생의 정신이 깃든 뜻깊은 역사 공간이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23년 나주시와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월정서원을 나주 지역의 대표적인 청렴유적지로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바 있다. 이날 교육은 월정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청렴유적지 조성 경과 소개, 전력거래소의 반부패·청렴 추진 노력 공유, 청렴 메시지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청렴 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현장 방문 교육이 아니라, 전력거래소의 새로운 가족이 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운영되는 만큼 그 바탕에는 청렴, 책임감, 배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남 나주시 소재 월정서원에서 노사가 함께하는 ‘KPX 신입직원 청렴문화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우리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노사가 하나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신입직원들의 건강하고 청렴한 직장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입직원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반부패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에너지 전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지방보훈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선이공대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재가복지·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문했다. 사진제공=광주지방보훈청

광주보훈청, 재가복지·국가유공자 위문

조선이공대생 재능기부한 화과자 전달

광주지방보훈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선이공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재가복지·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문에 나섰다

특히 학생들은 화과자 제작 및 위문 등 전 과정에 참여하며 국가유공자의 희소공헌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및 취약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가사·간병·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복권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장숙남 광주보훈청장은 “매년 재능기부 참여해 주신 김윤민 교수와 학생들 직원들과 함께 재가복지서비스 및 취약계층 보훈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며 안부를 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의 날’ 성료 ‘게릴라 생태 전시 퍼포먼스’ 호응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지난 5일 ‘제51회 환경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오픈했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 동구청 관계자, 지역 작가·활동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되새기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게릴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동구의 미래 환경 비전 제시, 특별전시 참여 작가의 도슨트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전시는 김육진 전시 기획자를 비롯해 노은영, 윤우재, 정진영, 최재덕 등 지역 중견 작가들이 참여해 ‘전 지구적인 생태계의 공존’이라는 센터의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했다.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한 특별한 ‘게릴라 생태 전시 퍼포먼스’도 호응을 얻었다. 다습어린이집 어린이와 이웃 주민들은 직접 그린 멸종위기종 북극곰, 바다사자 등의 작품들을 센터 인근 골목 곳곳에 부착했다.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지난 5일 ‘제51회 환경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도시들’을 오픈했다. 사진제공=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역 작가들, 센터와 함께하는 활동가들, 이웃 주민들 그리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존의

가치를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든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